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센터에서 세계물협회가 주최하는 제6회 세계 물 회의 및 전시회(IWA World Water Congress & Exhibition)가 열렸다. 우리협회는 우리나라 대표 물 기관 및 관련기업들과 함께 한국관으로 참가하여 본 행사에 참여한 많은 국가의 전문가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의 물산업을 당당히 알린 2008 IWA 오스트리아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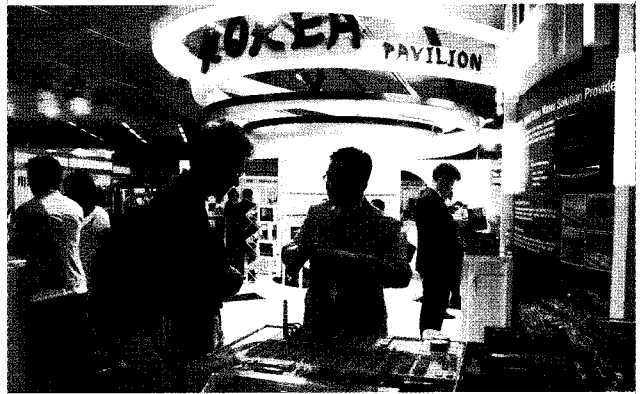
우리협회는 세계물협회(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이하 IWA)가 주최한 이번 국제 전시회에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 국내외에서 왕성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그리고 2012년 '제8회 세계 물 회의 및 전시회(IWA World Water Congress & Exhibition)'를 개최하기로 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이는 지난 2006년 북경 전시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물산업을 적극 홍보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물 관련 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세미나와 물 관련 대표 기업의 최신 제품 및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로 진행되어 세계 물 관련 분야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성공적 해외 전시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의 중요성

협회는 지난 3월 부산시로부터 이번 전시회에 한국관 참가 업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당시에는 부산시의 2012년 행사 개최 결정과 이에 따른 한국관 참가만이 결정된 상황이었고 참여기업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협회는 회원인 부산시의 요청대로 한국관 참가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고 이후 부산시와 참가업체 확정을 위해 분주히 업무를 추진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의 참여

를 확정하였다. 이후 부산시의 담당자가 두 번이나 변경되는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회는 더 이상 업무를 미룰 수 없어 지난 7월에 제1차 한국관 참여기업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부스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마침내 8월, 제2차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업무를 진행하였다. 한국관은 국내에서 디자인을 하고 현지에서 제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부스디자인 확정이 늦어지자 현지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협회와 디자인 업체는 서둘러 새로





은 제작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며칠 동안의 수고로 제2의 제작업체를 섭외했지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해 디자인 업체는 이윤을 포기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두 달이라는 부족한 시간 안에서 진행해야 했던 이번 업무를 통해 해외 전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한국의 기업, 세계무대에 서다

이번 전시회에는 베를린, 지멘스, IIT, hawle 등의 세계적인 물 관련 기업과 일본, 독일, 싱가포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가 국가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외에도 많은 관련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사흘만에 완성된 한국관은 어느 부스보다 디자인이 우수해 많은 참관객과 참여기업들의 찬사를 받았고 한국관 부스를 사진에 담기 위한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첫째 날 오후에는 IWA 사무총장을 포함한 VIP들이 한국관을 방문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의 김인수 교수가 이들에게 한국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 환경장관을 비롯하여 4일의 전시기간 동안 약 2,000여 명의 각국 전문가 및 학계 종사자들이 한국관을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두산중공업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소개하였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새로이 추진중인 담수화 사업과 IWA에 발표한 기술을 소개하였으며, 포스코건설은 수처리 사업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수도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을 소개하였고, 부산시는 오는 2012년 IWA 행사 개최를 알리며 부산시의 관광 및 문화를 홍보하였다. 특히 협회는 워터코리아 행사와 협회 홍보 브로셔 배부를 통해 국제상수도전시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관을 운영한 협회나 각 참여기관에 게 많은 의미를 남겼다.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관이라는 공동 부스를 구성하여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로 협조했다. 또 각 참여기관 역시 이번 전시 참가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었고 차기 전시회에는 좀 더 큰 규모로 참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로서는 2012년 행사 개최 홍보뿐만 아니라 IWA 행사 진행에 대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협회에는 지난 북경전시회와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해외 전시참가에 따른 절차와 대처방법 등 많은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